

충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전… 공공기관 이전 추진

국회서 에너지 전환 당위성 강조
2038년까지 석탄화력 21기 폐쇄
부가가치 감소 등에 지역경제 타격
보령·태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세종시 출범 손실에 보상 필요

충남도가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해 온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활동을 공식 화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도 함께 추진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원 요청에 나섰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건의했다.

충남도가 통합본사 유치에 적극 나서 는 것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 가까이 충남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 발전 5개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각각 보령과 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53.8%)가 충남에서 가동



박수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이소영 여당 간사(왼쪽)를 만나 충남 현안을 건의했다.

중이다. 발전용량도 전국의 36.7%인 1만9096MW에 달한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부담 역시 충남이 가장 크게 떠안고 있다. 이미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가 폐지됐으며, 오는 2038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기의 화력발전소가 추가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충남에서 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 감소액은 19조2080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7조8300억원, 취업 감소는 7577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추가

폐지까지 반영되면 지역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인구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보령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 이후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달 말 기준 9만1260명까지 감소했다. 태안군도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6개월 만에 인구가 400명 이상 줄었다.

도는 보령과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이 40여년간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대기오염과 송전선로 설치 등 환경·재산상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의 희생을 고려할 때 통합본사는 충남

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통합본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역사별 해소 차원에서 '보상형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 13만 7000명과 면적 437.6㎢가 감소했으며, 충남연구원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25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되면서 충남의 지역경제가 어느 지역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여야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부처 건의,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7대 본부장에 김상우 취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의 제 7대 본부장으로 김상우 본부장이 취임했다. 이번 인사는 한수원이 지난 16일 단행한 본부장급 보직 이동의 하나로, 새울본부를 포함해 ▲한강희 기획본부장 ▲김성면 발전본부장 ▲홍승오 건설사업본부장 ▲정병수 재생수력사업본부장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 ▲김현주 한빛원자력본부장 ▲이용희 한울원자력본부장 등 8개 보직이 교체됐다. 김상우 본부장은 1995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약 30년간 원전 현장과 본사를 두루 거쳤다.



/부산=이도식 기자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전달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무더위 속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여름 이불 세트 전달에 나섰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등 관내 5개 구의 폭염 취약 저소득 가정 각 30세대, 총 150세대에 이불 세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의 기부금 공모사업 하나로 마련됐다. 한국마사회는 랫츠런 재단을 통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사회복지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0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해 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공통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공룡 체험행사

해남공통박물관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일요일에는 버블 풍선쇼 등 다채로운 특별 공연이 열리며, 매주 토요일에는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운영한다. 주말동안 발굴체험장에서 청렴 공룡 화석을 찾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청렴 발굴 대작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명사십리서 해양레저 무료 체험

완도군은 8월 2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2026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9년 연속 친환경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획득한 명사십리를 알리고, 피서객들에게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래프팅, 카약, 서프보드, 당기 요트 등 무동력 레저와 세일링·크루즈 요트 체험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요트 체험은 목요일요일에만 운영되며 서프보드는 경력자만 이용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30분~17시이며, 월요일은 휴장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포항, 글로벌 AI 산업 거점 도약 시동

2조 들여 2027년 준공 목표 철강·이차전지와 연계 기대

포항시가 광명일반산업단지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시작하며 AI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20일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철수 포항시의회의장, 시·도의원, 투자사인 네오AI클라우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지역 대학·연구기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은 총 2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자로 1단계 40MW급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후 약 260MW 규모의 2단계 확장도 계획돼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패스트트랙 TF를 운영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입주 승인, 건축허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 비기술평가와 기존 건축물 철거,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갔다.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산업과 포스텍, 한동대, RIST, KIRO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포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과 기술,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AI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해, 기술혁신 선도기업 8곳 선정

5대 전략산업 R&D 역량 강화

경남 김해시가 20일 '2026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8개사를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해시 5대 전략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4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3년째다.

이사업은 ▲의생명·의료기기 ▲디지털 물류 ▲스마트 센서 ▲미래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5대 전략 산업과 액화수소, 민군 MRO, ICT 융합 등 미래 기반 산업 관련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발표 평가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기술력과 사

업화 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사를 확정했다.

공모에는 50개사가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년 첫째 10개사, 지난해 8개사에 이어 올해까지 누적 26개사가 선정됐으며 선정 기업은 3년간 성장 지원을 받는다.

선정 기업은 매출액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도전트랙'과 '성장트랙'으로 나뉜다.

도전트랙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이 상용화 이전 단계 R&D 과제, 성장트랙은 20억원 이상 기업이 시제품 제작과 표준화 등 후속 과제를 수행한다. 지방세 감면, 투자 네트워크 등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 전환펀드, 디알엑시온 첫 투자

미래차 경량화 부품시장 진출 지원

부산시가 조성한 '부산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지역 1호 투자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디알엑시온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전환펀드로는 전국 최초 사례다. 디알엑시온은 1979년 대림기업으로 창립한 부산 향토기업이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알루미늄 정밀 주조와 가공 분야에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정부의 월드클래스 300, 명문뿌리기업 인증을 받았고, 올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투자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디알엑시온은 기존 엔진 부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경량화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는 지난해 2월 조성 계획이 공식화된 뒤 같은 해 6월 551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결성됐다. 5대 시중은행이 500억원, 부산시가 41억원, 한국산업은행이 10억원을 출자했으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모펀드를 운용한다.

자펀드 운용사로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아주IB투자 ▲노애프트너스 3곳이 선정돼 총 8000억원 이상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국가정보통신망 전국 첫 이원화

창원·진주 이중 거점 가동

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의 백본전송망과 도 행정통신망을 모두 지역 이원화한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해 기존에 창원 본청과 대전센터에 있는 단일 거점으로 운영하던 구조를, 진주 서부청사를 서울센터와 신규 연결해 이중 거점 분산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본청은 대전센터, 서부청사는 서울센터를 각각 거점으로 삼아 운영하게 된다. 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백본전송망'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통신망'으로 나뉜다. 백본전송망은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



경남도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과 도 행정통신망의 지역 이원화 구축을 완료했다. /경남도

던 국가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핵심 전송망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한다. 경남도 행정통신망은 도청을 중심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을 잇는 전용 통신망이다. 이번 사업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9월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였다.

/경남=손병호 기자